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경북 구미서

모든 것이 감동, 모두가 친구

오늘부터 20일까지... 전북선수단 153명 참가

육성·보급·시범·전시종목으로 구성 총 17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7~20일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 88명과 임원 및 관계자 65명 등 153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장애학생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전국 순회 개최된다. 초·중·고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에게 장애인체육과 지역의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육행사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전북선수단은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디스크폴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조정 축구, 플로어볼, e-스포츠, 슐런 쇼다운 등 14개 종목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3,400명(선수 2,000여 명, 임원 및 보호자 1,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17일 오후 5시 박정

희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회 종목은 총 17개 종목으로 육성종목과 보급종목, 시범종목, 전시종목으로 진행된다. 육성종목은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5개 종목이며, 보급종목은 농구, 배구, 볼링 등 10개 종목, 시범종목으로 슐런, 전시종목으로 쇼다운이 선보인다.

한편 전북선수단은 지난 대회에서 금 6개, 은 5개, 동 7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모든 것이 감동이고 모두가 친구가 되는 대회"라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진정한 챔피언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체육학과와 (사)희망찬코리아가 전북지역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스포츠 인재 양성 힘 모아’

우석대 체육학과-희망찬코리아,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학술정보 교류·교육과정 운영 협의 등 손 맞잡아

우석대학교 체육학과와 (사)희망찬코리아가 전북지역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3일 (사)희망찬코리아 세미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조현철 학과장과 김현룡 교수, 정은철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 인재 발굴 및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학술정보 교류 및 워크숍 개최 ▲교육과정 운영 협의 및 자문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연구 사업 공동 참여 등이다.

조현철 학과장은 "장애인 자립과 엘리트

스포츠인 양성 등을 위해 왕성한 활동과 성과를 만들고 있는 (사)희망찬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 학과가 그동안 쌓아 온 연구 실적과 체육 인재 양성의 성과를 함께 공유해 지역의 체육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철 이사장은 "우석대학교 체육학과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희망찬코리아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수준운동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국제펜싱연맹 월드컵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명기, 손태진, 박상영, 권영준(사진 왼쪽부터)

男 에페, 펜싱연맹 월드컵 단체전 우승

익산 권영준, 3바우트 8대8 동점 속

8득점 성공시키는 등 활약 돋보여

익산이전 펜싱부 소속 권영준 선수가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 출전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권영준 선수는 지난 12일부터 15일 독일 하이덴하임에서 열린 '2022 국제펜싱연맹 하이덴하임 월드컵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에페 대표팀은 8강에서 스위스를 45대 29로 격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준결승에서는 헝가리를 만나 37대36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대회 개최국인 독일을 만나 45대43으로 격침시키며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결승전에서 권영준 선수의 활약이 빛났는데, 3바우트 8대8 동점의 상황에서 상대에게 1실점만 허용하고 무려 8득점을 성공해 7점 차까지 벌려놓으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한국 쪽으로 가져왔다.

이 관계자는 "국대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권영준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익산시 펜싱부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하이트진로 女 역도팀

전국대회서 '맹활약'

문곡서상천배 경기대회서

금 4·은 3·동 2개 획득

하이트진로 여자 역도팀이 전국대회서 맹활약했다.

16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충남 서천에서 열린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에서 하이트진로 여자 역도팀이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먼저 71kg급에 출전한 문민화는 인상과 용상, 합계 등 모두 1위에 올라 3관왕을 차지했고, +87kg급 김지현은 용상에서 1위를 했지만 합계에서 각각 3위와 2위를 기록했다.

또 유민아는 64kg급에서 인상 2위, 용상 3위, 합계 2위를 차지했다.

하이트진로 역도팀 감독인 김득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의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게 감사を 전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봉사단 모집... 5개국 파견

내달 7일까지 신청접수

태권도 보급·위상 제고

올해는 100명 내외 선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내달 7일까지 해외에서 태권도 보급과 봉사활동을 진행할 2022년 태권도 봉사단을 모집한다.

태권도 봉사단은 태권도 수련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태권도를 보급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은 현지파견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5개국 파견을 시작으로 사업이 재개됐으며 22년 100명 내외의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올해 선발될 봉사단원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교육을 강화해 태권도 지도 외에도 대회 지원이나 대민 봉사 등 협력요원으로 역할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과 파견국 태권도를 통해 가까워지는 실질적인 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기초와 성인지 교육 등 1차 온라인 교육, 면접 및 실기전형 합격 후 2차집합 교육에서는 태권도 지도법과 현지화 교육 등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 태권도 봉사단 파견자들의 개인역량 강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 추세에 있는 만큼, 파견 수요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라며 "코로나 19 상황과 봉사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초를 유지하며,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국기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선발한 2021 태권도봉사단원 50여명은 해외 파견을 대신해 8개국 4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태권도 봉사를 비롯해 특히, 아프리카 특별기여자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며 전원 노란띠 승급을 이끌어 내는 등 아프리카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무주=전문선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홍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